



보도 일시	2022. 1. 28.(금)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1. 28.(금)
담당 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담당자	서기관 유재형 (044-201-2515)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보은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수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 ASF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ASF 양성 개체가 발견된 곳(충북 보은군 장안면)은 기존에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던 최남단(제천시 덕산면)에서 남서쪽으로 약 52km 떨어진 곳이며,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상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 개체가 충주·괴산·상주·문경 등 인근지역까지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는 20천마리의 돼지(농장 16호)를 사육중이나, 만약 충주·괴산·상주·문경까지 확산될 경우 284천마리(177호)의 사육돼지가 ASF 위험에 노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오늘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주변에 그물망(약 3.5km)·경광등·멧돼지 기피제를 긴급 설치(2~3일 이내)토록 하고,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이동 가능경로에 포획트랩을 설치중(90개)이다. 또한 환경부, 충청도·보은군의 합동 수색인력(총 60명)을 동원하여 발생지점과 속리산 국립공원 사이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멧돼지 이동경로, 오염범위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여 발생지역에서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울타리도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보은군 소재 전체 양돈농장 19호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ASF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즉시 착수하였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초소를 설치·운영해서 농장 내 차량출입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보은 인근 6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의보”를 즉시 발령*(1.28.)하고 농가들에게 발생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월 30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해당 시군 내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도로(25·37번 국도)와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의 양돈농장 주변 진입로·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기로 하였다.

* 충주는 제천시 야생멧돼지 ASF 발생(11.22.)으로 위험주의보 기 발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또한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경우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반입시설)에 대한 설치의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충북·경북 전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충북의 남부지역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된 현 상황을 엄중히 보아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조속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행안부)하여 지자체도 적극 참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협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설 연휴 기간 모임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관계부처는 오염원이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북 보은군 일대의 멧돼지 포획·수색과 인근 도로 및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고, “설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담당 부서 <총괄>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담당자	서기관	유재형 (044-201-2515)
담당부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이용진 (044-201-2537)
담당부서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팀 장	김지수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492)
담당부서	행안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박경현 (044-205-6190)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044-205-6192)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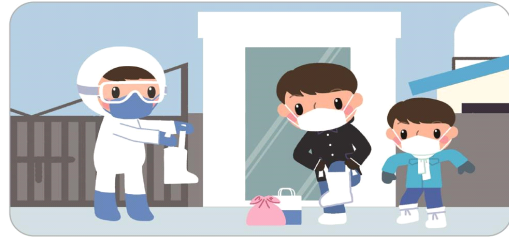
올 설 명절, 가축방역도 함께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가축전염병을 예방합니다!

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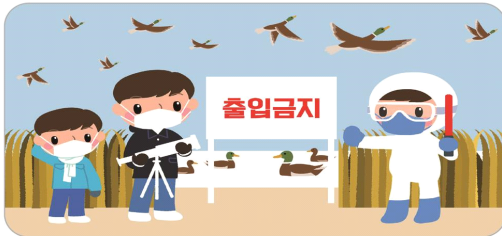


축산농장 방문 자제(오염원 유입 위험!)



불가피한 경우 대인소독 및 방역복 착용, 사육시설 진입 금지!

오염 우려지역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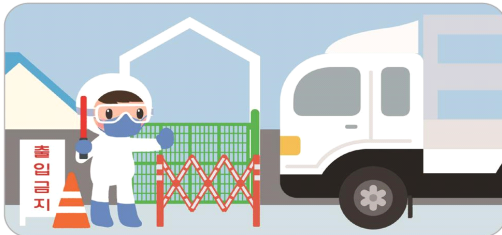


낙시·산책 등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경기·강원·충북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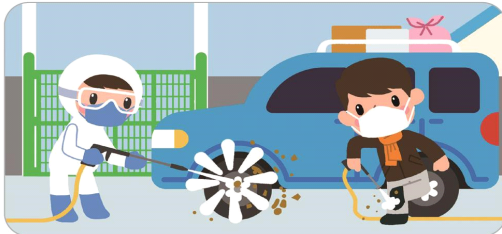
축산농장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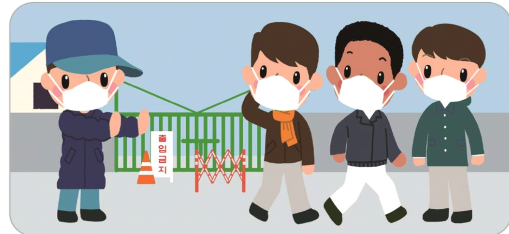
외부 사람·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



“농장 4단계 소독” 매일 실천



성묘 직후 사육시설 출입 금지, 차량·의복·신발 소독



축산 관계자 간 모임 자제